

#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Solitary Play and Temperament, Problem Behaviors

김민정(Min Jung Kim)<sup>1)</sup>

엄정애(Jung Ae Oh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orms of children's solitary play and temperament, problem behaviors. Seventy-six children of four-year-olds were observed during free play. Children's temperament was measured by mothers of participants.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measured by teachers. Following from Coplan et al(1994), this study were analyzed three aggregate measures of solitary play consisting of reticent behavior, solitary-passive play, and solitary-active pla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first, the highest frequency of solitary play's forms was reticent behavior, followed by solitary-passive play, then solitary-active play. There weren't any differences in children's solitary play according to their gend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orms of children's solitary play and temperament. And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correlates of different forms of solitary play.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orms of children's solitary play and problem behaviors. Also,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correlates of different forms of solitary play. This result points out the important of solitary play and distinction of solitary play'forms.

**Key Words** : 혼자 놀이(Solitary play), 기질(Temperament), 문제 행동(Problem behavior).

## I. 서 론

지식을 단순히 주위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축척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

으로써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시각에서 유아를 학습의 주체자로 보고 각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진보 주의적 시각으로의 변화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생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Ae Oh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ohm@ewha.ac.kr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였다. 유아기 놀이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유아 놀이의 양상, 놀이의 발달,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놀잇감 등 놀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낳게 하였다(James, James & Thomas, 2001).

놀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유아의 놀이 행동이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가 복잡해지며, 사회적 놀이 빈도가 증가하고, 놀이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혼자놀이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강영식, 2001; 김완미, 2001; Wright, 1990). 이런 일반적인 놀이의 흐름은 혼자 놀이나 비놀이 행동을 덜 성숙한 행동이거나 사회적으로 덜 발달 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아동의 놀이단계를 사회적으로 개념화한 Parten(1932)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놀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성,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Parten(1932)은 그의 연구에서 놀이를 비 놀이, 혼자, 병행, 연합, 협동으로 나누고 혼자 놀이를 놀이의 가장 낮은 성숙 단계라고 이야기 함으로 지금까지 유아 교육자들이 혼자 놀이를 미성숙한 단계의 놀이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Lloyd & Howe, 2003). 이런 경향은 혼자 놀이를 비사회적 놀이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회적 유능감과 혼자 놀이의 부적 연관성을 보고한 많은 연구들(민지영, 2002; 이경실, 1997; 이사임, 1995; Rubin, 1977)을 통해 보다 강력히 증명되었다. 또한 Kagan, Reznick, Clarke, Snidman과 Garcia-Coll(1984)은 혼자 놀이의 잦은 빈도수는 새로운 사회적 자극을 얻는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고했다. Rubin, Chen, Mcdougall, Bowker와 Mckinnon(1995)은 유아기 혼자 놀이의 모든 형태와 비참여, 쳐다보기 행

동을 사회적 움츠러듬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의존성, 내면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혼자 노는 유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 그 동안 혼자 노는 유아들은 낮은 사회성, 낮은 사회·인지적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의 사회적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drowes(1992)는 혼자 노는 유아들에게는 명백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혼자 놀이는 정서 발달(Strom, 1976), 신체적 기술(Piaget, 1962), 언어 발달(Garvey, 1990), 그리고 사회적 정보 처리 능력(Harrist, Zaia, Bates, Dodge, & Pettit, 1997)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Lloyd & Howe, 2003에서 재인용). 이렇게 혼자 놀이가 유아에게 명백한 이익이 있다는 연구들의 등장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혼자 행동을 묘사하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혼자 놀이에서 보인 유아의 행동을 사회적 개입과 놀잇감에 보인 흥미의 질에 따라 혼자 능동적, 혼자 수동적, 말없는 행동의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별하였다(Coplan, Rubin, Fox, Calkins & Stewart, 1994; Lloyd & Howe, 2003; Molina, Coplan & Wichmann, 1999). 이 같은 혼자 놀이에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 분류는 그 동안 비 사회적 놀이 연구에서 유아의 혼자 놀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의 기질에 따라 놀이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이 혼자놀이의 유형과 기질의 관련성은 각 유형의 혼자 놀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줄 뿐 아니라 유아가 혼자 놀 때의 심리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Coplan 등(1994)은 혼자놀이를 말없는 행동, 혼

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로 나누고 만 4세 유아 48명을 대상으로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놀이와 기질에 대한 부모의 평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각각의 유형은 기질과 상이한 상관을 가짐을 밝혀 세부적 항목의 타당성을 밝혔다. 놀이와 두려움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더니 말없는 행동과 두려움과 충동성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고,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으로 상관있었다. 그러나 혼자 수동적, 혼자 활동적 놀이와 유아의 기질적 요소와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조은옥(2003)이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 성향과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혼자 놀이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유아의 말없는 행동과 사회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랠 수 있는 정도와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혼자 놀이와 기질과의 관련성은 부모나 교사로 하여금 각각에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이제까지 혼자놀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혼자 놀이를 바라본 시각은 유아가 혼자 노는 것이 곧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기인 할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놀이의 각 유형이 독립적이며, 기질과 다른 관련성을 맺는다면, 교실 내의 문제 행동들과도 각각 다른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Coplan, Molina, Seguin과 Wichmann (2001)은 말없는 행동을 하는 유아들은 공격성 같은 외적 문제를 자주 보였고, 혼자 능동적 놀이는 내적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비해 혼자 수동적 놀이와 문제 행동은 관련성이 없었다. 이처럼 혼자 놀이의 유형에 따라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를 통해 교실 내 유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혼자 놀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혼자 놀이 유형과 교실 내 문

제 행동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들은 혼자 놀이와 변인과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plan 등(2001)의 연구에서 말없는 행동은 여아, 남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혼자 수동적 놀이를 자주 하는 남아는 사회적 유능감, 지적 성취도 점수가 낮게 나왔고, 여아는 지적 성취도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혼자 능동적 놀이를 하는 남아는 외면화 문제에 있어서 혼자 능동적 놀이를 전혀 하지 않는 비교 집단과 차이가 없었지만, 여아에게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혼자 놀이가 남아, 여아에게는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줌으로 혼자 놀이와 기질, 문제 행동 간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혼자 놀이가 이처럼 유형과 변인에 따라서 다른 관련이 있고,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은 과거 혼자 놀이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혼자 놀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외국에서는 혼자 놀이의 재조명을 위한 연구들(Asendropf, 1991; Coplan 등, 2001; Lloyd & Howe, 2003; Molina 등, 1999)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아의 혼자 놀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 놀이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왔던 혼자 놀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혼자 놀이 행동은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질과 문제 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의 혼자 놀이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혼자 놀이는 어떻게 나타  
나며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1. 유아의 혼자 놀이 경향은 어떠한가?
- 1-2. 유아의 혼자 놀이 경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혼자 놀이가 기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2-1. 유아의 혼자 놀이가 기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2-2.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과의 관련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혼자 놀이가 문제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3-1. 유아의 혼자 놀이가 문제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3-2. 유아의 혼자 놀이와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Y 유치원과 H 유치원의 만 4세(평균 62.71개월) 학급 4개 반 유아 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등원 시간이 늦거나 결석 등의 이유로 자유선택활동을 관찰하기 어려워 연구 횟수가 부족한 유아와 어머니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76명(남; Y유치원 18명, H유치원 19명, 여; Y유치원 21명, H유치원 1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기질 측정 도구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용 기질 측정 질문지는 Buss와 Plomin(1984)이 식별한 3가지 기질 차원을 통합하여 Plomin과 Row(1977)가 개발하고, Jewswan, Luster 및 Kostelnik(1992)이 사용한 「Colorado Child Temperament Inventory(CCTI)」를 김혜수(199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혜수는 이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장 및 어휘, 단어의 적절성을 위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CTI는 사회성, 감정성, 활동성, 집중력, 지속성, 진정성, 음식에 대한 반응의 6개 범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음식에 대한 반응을 제외하여 5개의 범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질문지의 전체 문항은 사회성, 감정성, 활동성, 집중력, 진정성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질 범주별로 5문항씩 총 25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도구는 5단계 평정척도로서 유아의 특정 행동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빈도를 나타나는지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항상 그렇다의 척도로 기록하게 된다. 기질 범주의 몇 몇 문항은 평가 척도와 역순위로 배점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하위 문항별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pha$ 는 .56 ~ .91로 나타났다.

### 2) 유아의 문제 행동 측정 도구

Behar과 Stringfield(1974)의 만 3~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PBQ)」를

서수경(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BQ는 유아가 기관에서 특정 행동을 어느 빈도로 나타내는지 유아의 담당 교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 전체 문항은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격성 범주 10문항, 불안 범주 9문항과 과행동 및 산만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기록하게 된다. 기질 범주의 몇몇 문항은 평가 척도와 역순위로 배점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하위 문항별 신뢰도 계수를 측정 한 결과 cronbach's  $\alpha$ 는 .74 ~.90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놀이 행동 관찰 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 행동을 평가하기 위

해서 Rubin(1989)이 고안한 「Play Observation Scale(POS)」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기초가 되었던 Rubin의 도구는 Piaget의 인지적 놀이 단계를 변형한 Smilansky(1968)의 놀이범주와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 범주를 통합한 것으로써 사회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고안된 것이다.

수정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 선택 및 범주화를 위해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과 석사과정 재학생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4) 유아의 혼자 놀이 범주

본 연구에서 유아의 혼자 놀이를 분석하기 위해 Coplan 등(1994)의 범주를 사용하였다. Coplan 등(1994)은 혼자 놀이의 유형을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로 나누어 분

〈표 1〉 유아의 놀이 행동 관찰 기준

놀이 행동	정 의
<b>사회적 놀이유형</b>	
혼자놀이	옆에 있는 유아의 놀이와는 차별적인 놀이를 하며 독립적 행동을 하는 것
병행놀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유사한 놀이를 하지만 독립적 행동을 하는 것
연합놀이	또래 친구와의 활동이지만 집단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나 활동 노동 분담 조직은 부족한 것
협력놀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노동 분담, 역할 설정, 공동의 목표 조직이 분명한 것
<b>인지적 놀이유형</b>	
기능놀이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
구성놀이	가작화된 주제 없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
극놀이	가작화 놀이를 하는 것
규칙있는 게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조직적인 놀이에 참여하는 것
비참여	놀이에 몰입하지 않는 행동
쳐다보기	놀이를 하는 다른 유아를 바라보거나 듣는 행동
전이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환
기타	교사와 또래와의 대화,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 친구의 활동 방해

석하였다. 말없는 행동은 쳐다보기, 비참여 행동을 포함하고, 혼자 수동적 놀이는 혼자 구성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는 혼자 기능놀이와 혼자 극놀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뒤 다시 Coplan 등(1994)의 범주로 재분석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위해 1, 2차에 나누어 예비 연구가 실시되었다.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1차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예비 연구 기관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본 연구를 실시할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H 유치원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의 만 4세 학급의 어머니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 유아의 기질 측정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9부가 회수되었으며, 교사에게 유아의 문제행동 측정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10부가 회수되었다. 질문지에 대한 논의 결과 기질 측정 질문지와 문제행동 측정 질문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2차 예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놀이 관찰 범주가 실제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는데 적합한지, 또 관찰 시간과 기록 시간이 적절한지 알아보고, 관찰자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자 외에 2명의 관찰자를 두었다.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공자 3명이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2차 예비연구는 2004년 9월 7일 실시하였는데, 예비연구 전에 관찰자들과 관찰 일정, 관찰

장소, 관찰 방법, 놀이 관찰 체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의문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2차 예비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H유치원 4세 학급의 자유선택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이를 가지고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관찰자가 놀이 행동을 평정해 보았다. 평정 과정에서 처음 계획하였던 Rubin(1989)의 연구 도구로 측정할시 놀이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행동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되었다. 그 결과 Rubin(1989)의 놀이 관찰 도구에 전이와 기타 항목을 넣어 수정하기로 하였고, 세부 사항은 평정 기록지에 적기로 하였다. 관찰 시간과 기록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10초 관찰 5초 기록의 시간 표집법을 사용하였는데, 3명의 관찰자 모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명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 92%였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10월 28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어머니와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연구 대상 유아의 놀이 행동 측정을 위해서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10월 28일까지 총 7주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7주간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2번씩 총 12회를 관찰하였다. 자유 선택 활동은 하루에 40분~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3명의 관찰자가 각 반을 관찰하였다. 자유선택시간 전에 유아들에게 번호표를 부착하여 번호 순으로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였고, 한 유아 당 50회를 관찰하였다. 유아들의 놀이 행동은 10초 관찰, 5초 기록

시간 표집법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연구 기간을 워치럼 잡은 이유는 선행 연구들이 혼자 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잡았던 기간을 참조하여 사회적 놀이와 혼자 놀이의 빈도수를 알아본 연구들(Lloyd & Howe, 2003; Wright, 1990)을 통해 혼자 놀이가 전체 놀이 유형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혼자 놀이의 유형과 성, 기질 변인에 따른 혼자 놀이 유형을 보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길게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혼자 놀이의 양상은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기질과 혼자 놀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문제 행동과 혼자 놀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혼자 놀이 양상

#### 1) 유아의 놀이 양상

<표 2>에 나타났듯이, 유아들의 놀이를 사회적 놀이 범주로 살펴보면 병행놀이(37.55%), 집단놀이(25.28%), 혼자놀이(11.82%)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혼자놀이와 인지놀이가 혼합된 범주를 살펴보았더니, 혼자 놀이의 빈도는 구성 놀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극놀이, 기능놀이, 규칙이 있는 계

<표 2> 유아의 놀이 양상 1)

놀이 유형	빈도	백분율	M(SD)
혼자 놀이	449	11.82	5.90(2.60)
기능놀이	57	1.51	0.75(1.26)
구성놀이	284	7.47	3.73(3.64)
극놀이	94	2.47	1.23(2.13)
규칙있는 게임	14	0.37	0.18(0.66)
병행 놀이	1426	37.55	18.76(8.27)
집단 놀이 <sup>1)</sup>	960	25.28	12.63(5.18)
비 참여	156	4.10	2.05(1.85)
쳐다보기	373	9.83	4.90(4.18)
전 이	94	2.47	1.23(1.25)
기 타	340	8.95	4.47(2.90)
혼자 놀이의 유형			
혼자 수동적 놀이	284		3.73(3.64)
혼자 능동적 놀이	151		1.98(2.37)
말없는 행동	529		6.96(4.56)

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 놀이의 유형이 독립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Coplan 등(1994)에 따라 혼자 놀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혼자 놀이의 양상을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의 세 하위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만 4세 유아의 혼자 놀이는 말없는 행동(M=6.96), 혼자 수동놀이(M=3.73), 혼자 능동적 놀이(M=1.98)순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혼자 놀이 양상

유아의 성별에 따른 혼자 놀이를 3가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혼자 놀이 형태의 평균 빈도는 말없는 행동의 경우 남아는 6.62, 여아는 6.74이었다. 혼자 수동적 놀이의 경우, 남아는 3.43 여아는 3.69이었다. 혼자 능동적 놀이의 경우 남아는 2.03, 여아는 1.97로 나타났

1) 집단 놀이 : 연합놀이와 협력놀이를 포함하였음.

다. 3개 유형의 혼자 놀이 모두 혼자 놀이의 양상에 있어서는 성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유아의 성에 따른 혼자 놀이 유형별 차이 검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말없는 행동	남아	37	6.62	4.78	-.122
	여아	39	6.74	3.88	
혼자 수동적	남아	37	3.43	3.75	-.332
	여아	39	3.69	3.05	
혼자 능동적	남아	37	2.03	2.79	.095
	여아	39	1.97	1.97	

\* $p<.05$  \*\*\* $p<.001$

## 2. 유아의 기질과 혼자 놀이

유아의 기질과 혼자 놀이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기질과 혼자 놀이의 상관관계 (n=76)

기질차원 혼자놀이	사회성	감정성	활동성	집중력	진정성	
말없는 행동	전체	-.250*	.072	-.127	-.058	-.050
	여아	-.501**	.313	-.060	-.058	-.081
	남아	.020	-.123	-.164	-.035	-.018
혼자 수동적	전체	.235*	.061	.032	.113	.132
	여아	.403*	.063	.111	.031	.176
	남아	.005	.066	-.065	.223	.076
혼자 능동적	전체	.057	-.061	.090	.203	.022
	여아	.027	-.028	.056	.263	.094
	남아	.094	-.064	.065	.087	-.063

\* $p<.05$  \*\* $p<.01$

<표 4>에 의하면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말없는 행동과 기질의 5가지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사회성이었다( $r=-.250, p<.05$ ). 유아의 말없는 행동과 기질 차원의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교실 내에서 말없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유아들과 부모가 평가한 낮은 사회성 점수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혼자 수동적 놀이와 기질의 5가지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사회성이었다( $r=.235, p<.05$ ). 유아의 혼자 수동적 놀이와 사회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수동적 놀이를 자주 보이는 유아들은 부모가 평가한 높은 사회성 점수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혼자 능동적 놀이와 기질의 5가지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항목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과 혼자 놀이를 살펴보면 여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과 기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사회성이었다( $r=-.501, p<.01$ ). 여아의 말없는 행동과 기질 차원의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아의 혼자 수동적 놀이와 기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사회성이었다( $r=.403, p<.05$ ). 여아의 혼자 수동적 놀이와 사회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혼자 능동적 놀이와 기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항목은 없었다. 여아의 기질은 여아의 혼자 능동적 놀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와 기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없었다.

연구 결과 여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과 사회성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혼자 수동적 놀이와 사회성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나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반면 남아의 경우 기질과 혼자 놀이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문제 행동과 혼자 놀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혼자 놀이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전체 유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과 문제 행동과의 3가지 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불안과 과행동 및 산만이었다( $r=.338, p<.01, r=.241, p<.05$ ). 유아의 말없는 행동은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말없는 행동을 자주

<표 5> 유아의 문제행동과 혼자 놀이의 상관관계 (n=76)

혼자놀이 \ 문제행동	공격성	불안	과행동과 산만	
말없는 행동	전체	-.024	.338**	.241*
	여아	-.152	.231	.335*
	남아	.205	.482**	.072
혼자 수동적	전체	.181	.085	.088
	여아	.189	.158	.146
	남아	.201	-.017	-.006
혼자 능동적	전체	.152	-.048	.071
	여아	.192	-.049	.044
	남아	.055	-.034	.143

\* $p<.05$  \*\* $p<.01$

보이는 유아와 교사가 평가한 문제 행동 척도에서의 높은 불안 점수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말없는 행동은 과행동과 산만의 항목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말없는 유아들은 교실에서 과행동을 보이거나 산만한 편이라는 교사는 평가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혼자 수동적·능동적 놀이와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없었다. 혼자 수동적·능동적 놀이를 하는 유아들은 문제 행동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문제 행동과 유아의 혼자 놀이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여아의 말없는 행동과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과행동과 산만이었다( $r=.335, p<.05$ ). 말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여아와 교실 내에서 잦은 과행동과 산만한 행동이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과 공격성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혼자 수동적·능동적 놀이와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항목은 없었다. 혼자 수동적·능동적 놀이를 자주하는 여아들에게 특별히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과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 영역은 불안이었다( $r=.482, p<.01$ ). 말없는 행동을 자주하는 여아는 과행동과 산만한 행동을 자주 하는 반면 교사는 말없는 행동을 자주하는 남아를 내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평가했다.

남아의 혼자 수동적·능동적 놀이와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하위영역은 없었다. 전체적인 경향이

나 여아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말없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유아들은 불안과 과행동 및 산만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자 수동적 놀이나 혼자 능동적 놀이는 문제 행동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말없는 행동에 있어서 여아, 남아에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말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여아는 과행동과 산만 행동을, 남아는 불안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혼자 수동적 놀이나 혼자 능동적 놀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혼자 놀이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놀이 유형이 기질 및 문제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유아의 혼자 놀이 양상은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놀이의 유형 중 혼자 능동적 놀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Coplan 등(1994)이 혼자 능동적 놀이가 약 3%로 혼자 놀이 중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아니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혼자 놀이의 양상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아와 여아의 혼자 놀이 패턴이 유사함을 밝힌 Moore, Everton 과 Brophy(1974)와 학령전기 유아들의 혼자 놀이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한 Rubin(198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혼자 놀이의 3가지 유형이 남여를 막론하고 교실의 자유놀이 시간에 나타

나는 일반적인 놀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말없는 행동은 유아의 기질 항목 중 사회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반대로 혼자 수동적 놀이는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혼자 능동적 놀이는 유아의 기질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말없는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결과는 사회성이 말 없는 행동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던 Coplan과 Rubin(1998)과 조은옥(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말없는 행동과 수줍음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했던 Coplan 등(2001)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배회하는 행동이나 쳐다보기 행동을 자주 하는 유아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을 타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을 향한 내성적인 기질은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Asendorpf, 1991). 이 같은 기질적인 고정성으로 인해 유아들이 유아기 내내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워하거나 배회한다면 Rubin(1989)의 연구에서처럼 장기적인 내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놀이가 유아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가 말없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유아들을 사회적으로 격려해주거나 적절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나왔던 혼자 수동적 놀이와 사회성과의 정적 상관은 유아의 내성적인 기질과 혼자 수동적 놀이와의 정적 상관을 보고했던 Asendorpf(1991)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Asendorpf(1991)의 연구는 실험실에서 무선으로 선정된 짝과의 놀이 행동을 관찰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교실 내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

찰함으로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놀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무선으로 선정된 짝과의 놀이는 친숙한 환경에서 보이는 놀이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친숙한 또래가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수동적 놀이를 택한 유아는 새로운 환경과 낯선 또래 환경에서의 선택보다 더 자발적이고 의지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혼자 능동적 놀이가 유아의 기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혼자 능동적 놀이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Coplan 등, 1994; Coplan & Rubin, 1998). 혼자 능동적 놀이는 기질적인 예측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혼자 노는 유아가 곧 비 사회적 유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 무의미하게 배회하거나 쳐다보는 행동을 포함하는 말없는 행동이 사회성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혼자 수동적 놀이나 혼자 능동적 놀이를 자주 하는 유아들을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내성적인 유아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로 나뉜 혼자 놀이의 3가지 유형은 기질과의 관련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으로 서로 다른 독립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자 놀이라고 보는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를 모두 같은 놀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혼자 놀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견해를 환기시키고 교사가 혼자 놀이 유형의 특징에 맞게 개입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유아의 혼자놀이와 기질과의 상관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혼자 수동적 놀이를 보이는 유아는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전

체적인 경향성과 일치했다. 반면 남아에게는 말없는 행동,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에서 모두 기질과의 관련성이 적게 나타났다. 혼자 수동적 놀이와 혼자 능동적 놀이의 경우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지만 말없는 행동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남아, 여아의 혼자 놀이가 다른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놀이도 성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 같은 결과는 혼자 놀이의 평가와 개입은 혼자 놀이의 유형 뿐 아니라 유아의 성별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유아의 혼자 놀이와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유 선택활동 시간에 말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유아들은 불안 행동과 과행동 및 산만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혼자 수동적 놀이와 혼자 능동적 놀이는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말없는 행동이 불안 행동이나 과행동 및 산만 행동과 연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말없는 행동의 어려움을 지적했던 여러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Coplan 등, 1994; Coplan 등, 2001). Coplan과 Rubin(1998)는 말없는 행동과 불안 문제의 관련성을 보고했고, 이후 자신의 연구(Coplan 등, 2001)에서도 말없는 행동과 공격성과 과행동 및 산만행동을 포함한 유아의 외적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말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유아들이 실제적으로 내, 외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교실 내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의 말없는 행동이 사회성과 부적 관련이 나타났던 것과 연계시켜 보았을 때 말없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는 유아들이 교실을 배회하거나 또래의 놀이를 쳐다보며 생기는 내적 갈등이 또래와 교사에게 문제 행동으로 비춰지고, 교실 내 문제 유아로 인식되어 더 배척당하고, 배척으로 인해 유아의 또 다른 접근 시도를 어렵게 하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2학년의 움츠러들 행동이 9학년의 내적 문제와 정적으로 연관되었다는 Rubin, Hymel과 Mills(1989)의 장기 연구처럼 말없는 행동의 악순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말없는 행동을 하는 유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또래 내 지위나 배척 때문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교사 자신의 편견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혼자 수동적 놀이와 혼자 능동적 놀이를 자주 하는 유아들이 교실 내 문제 행동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혼자 기능, 구성, 극놀이 등의 놀이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혼자 노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자 놀이를 택했다거나, 공격성, 과행동 및 산만 같은 외적 문제 때문에 또래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혼자 수동적 놀이와 내적 문제가 연관되고(Rubin, 1982), 혼자 능동적 놀이와 공격성 같은 외적 문제와 관련된다(Rubin 등(1989)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과거 혼자 놀이가 전체적으로 유아의 내적, 외적 문제에 어려움을 갖을 것이라는 예측에 반하여 혼자 놀이 유형이 내적, 외적 문제와 각각 다르게 관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혼자 놀이는 기질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과도 역시 차별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며, 혼자 놀이 유형과 기질 및 문제 행동과의 차별적인 관련성은 혼자 놀이의 유형이 독립적임을 다시 한번 지지해준다.

성별에 따라 문제 행동과 혼자 놀이와의 상관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과행동과 산만행동이 나타나고 혼자 수동적 놀이와 혼자 능동적 놀이를 보이는 유아는 문제 행동과 관련성이 없었다. 남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불안행동이 나타났고 혼자 수동적 놀이, 혼자 능동적 놀이에서는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이 적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을 하는 유아는 과행동이나 산만 같은 외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아는 말없는 행동과 사회성의 부적 관련성이 특히 높았는데 수줍음 같은 기질 때문에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이 유아의 과행동이나 산만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남아의 경우 말없는 행동을 하는 유아는 불안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사회적으로 여아와 남아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다. 사회적으로 조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행동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허용적인 편이고 혼자 놀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남아들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사나 부모의 평가와 연관될 수 있고, 이는 부정적인 강화로 이어져 말없는 남아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유아의 연령은 혼자놀이의 양상이나 혼자놀이가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에 따라 혼자 놀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평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혼자 놀이와 기질, 문제 행동 및 성별과의 관련성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혼자 놀이가 그 유형에 따라 인지적, 사회적 성취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시각만이 반영되었다. 부모나 교사의 평가가 유아의 혼자 놀이의 각 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후속연구에서는 혼자 놀이에 대한 또래 배척이나 또래 선호도 같은 또래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식(2000). 유아의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집 아동의 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미(2001). 유아의 또래 환경 특성과 놀이 행동 유형과의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수(1995).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에서의 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지영(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놀이참여형태 및 놀이전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실(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사임(1995).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에 따른 놀이 형태 및 놀이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옥(2003).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 Asendorpf, J. B.(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460-1474.
- Behar, L., & Stringfield, S.(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Coplan, R. J., Gavinski-Molina, M., Lanace-Seguin, D. G., & Wichmann, C.(2001). When Girls Versus Boys Play Alone : Nonsocial Play and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 464-474.
- Coplan, R. J., & Rubin, K. H.(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1-91.
- Coplan, R. J., Rubin, K. H., Fox, N. A., Calkins, S. D., & Stewart, S. L.(1994). Being Alone, Playing Alone, and Acting Alone : Distinguishing among Reticent and Passive and Active Solitude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29-137.
- Gavinski-Molina, M., Coplan, R. J., & Wichmann, C.(1999). *Nonsocial play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 with Adjustment*(Albuquerque, NM, April 15-18, 1999).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29729).
- James, E. J., James, F. C., & Thomas, D. Y.(2001). 놀이와 유아교육[*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신은수, 김은정 공역). 서울 : 학지사(원저는 1999년에 출판).
- Jewswan, R., Luster, T., & Kostelnik, M.(1992). The relation between parent'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 C.(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Lloyd, B., & Howe, N.(2003). Solitary play and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22-41.
- Moore, N. V., Everton, C. M., & Brophy, J. E.(1974). Solitary play : Some funtional reconsoderations.

- Developmental Psychology*, 10, 830-834.
- Parten, M. B.(1932). Soc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s :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logy*, 27, 243-269.
- Rubin, K. H.(1977). Play behavior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2(6), 16-24.
- Rubin, K. H.(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 Necessarily Evil?. *Child Development*, 53, 16-24.
- Rubin, K. H., Chen. X., Mcdougall. P., Bowker. A., & McKinnon. J.(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 Predictti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51-764.
- Rubin, K. H.(1989). The Play Observation Scale(POS).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 Rubin, K. H., Hymel, S., & Mills, R. S. L.(1989). 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 237-255.
- Row, D. C., & Plomin, R.(1977).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150-156.
- Smilansky, S.(1968). The Effects Of Socio-dramatic Play o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ew York : Wiley.
- Wright, L. (1990). The Social and Nonsocial Behaviors of Precocious Preschoolers during Free Play. *Roeper Review*, 12(4), 268-274.

---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9일 채택